

민중의 구술사와 “위인들” 및 조직중심 역사의 한계

By George Katsiaficas

구술사는 현대 사회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개발된 방법론으로, 1960년대에 시작된 이래 남한의 민중운동뿐 아니라, 최근의 대중 항쟁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모든 운동들의 중심에는, 역사속의 “위인들”이나 정치적 정당과 같은 조직보다는 민중이 가장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믿음이 놓여 있다. 역사적 이해방식에 관한 이 같은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역사적 분석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간단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역사적 위인에 관한 강조는 “부르주아”적 관점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는 개별화된 내적주체의 출현의 정도로 역사발전을 측정하는 독일의 철학자 G.W.F. 헤겔이다. 헤겔은 개인의 확장을 통한 역사적 발전을 추적했고, 이 과정은 소크라테스, 예수, 마르틴 루터 등으로 대변되는 “위인들”이 더 나은 인간 선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사건들에 방점이 찍혔다. 헤겔뿐 아니라 칸트에게 있어서도, 역사의 내적 발전은 국가를 통해서 완벽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개인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을 역사의 대변자의 한 형태로서 바라보던 헤겔의 관점은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구세대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 형성에 기여하는 도구로 위치가 뒤바뀐다. 역사는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발전이므로 타인과 고립된 주체의 발전을 역사 발전 측정의 도구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17,18세기의 유럽 철학자들은 한 개인의 생각 구조를 이해하고 다양한 차원과 역사적 전개에 따라 이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이와 유사한 분석학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운동이란, 수천의- 때로는 수백만의- 민중들의 구체적 실천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일어남에 따라 펼쳐지는 논리적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총파업, 항쟁, 반란과 혁명 등의 기간 동안 걸음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안에 담겨진 내적 논리는 ‘역사의 자유’라는 구체적 깨달음을 구성한다. 어떤 순간에서든 민중들의 집단적인 행위는 ‘자유’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봉기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들의 다급한 열망과 꿈, 역량, 그리고 미래를 향한 중요한 사건에 내재한 한계들을 드러낸다.

기업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가 지배한 20세기에 들어, 19세기의 “위인” 지향성은 “조직적 인물”에 대한 강조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한편에는 사회운동의 학술적 연구가 또 다른 한편에는 정당 혹은 NGO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적 전문성이라는 두 원리가 지속적인 긴장을 빚어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자원 이동성”의 개념은 사회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학문적 개념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심지어 서구사회의 개인화가 초월적 가치가 되었을 때도 특정 조직이나 특정자원의 우세여부를 서술하는 서사에 국한되었고, 이는 봉기 중에 조직의 형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였던 이름 없는 수많은 민중들을 또다시 간과한다.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하여 소련의 해체로 종식되었던 20세기 공산주의 역사는, 역사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정당의 중심적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더 최근에는 NGO들이 시민사회의 알파와 오

메가로 이해되는데, 이들은 대중운동의 자발적 조직의 차원이나,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차원보다는 조직을 전문화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공산주의 정당이든 NGO이든 조직 그 자체의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조직을 실제로 만들고 길러낸 일반 민중들의 움직임의 중요성은 숨겨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영구적인 평화 속에 사는 “이상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정당이나, 조직이나, 전문적인 정치인이나, “위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땅에서의 평화는 무장한 민족국가가 활동적인 일반시민들의 모임들로 교체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정확히 1980년 광주항쟁의 한 가운데 그 모델이 존재했다.)

영어로 한국 역사를 쓰는 것

거의 모든 경우에, 영어라는 언어 속에서의 한국 역사는 김일성, 딘 러스크, 더글라스 맥아더, 김대중, 박정희와 같은 “위인”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 한국에 관하여 가장 뛰어난 영어 역사학자들은 종종 민중들의 저항을 간과하고 (때로는 허위로 진술하며) 그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고 대신 “위인”을 강조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때로는 의도적인 커다란 오류들이 특정인들의 잇속만 차리게 도와주는 역사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20세기 말, 권위 있는 카네기 국제윤리위원회는 노태우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그것의 동력이라는 사고의 긴 줄을 따라 갔기에, 민주주의 전환기가 특정 개인의 관점에서 분석된 것이다. 카네기 보고서는 레이건이 1987년에 한국에 보낸 특사이자 그들의 보고서에 기사를 공헌하기도 했던 가스톤 시거 (Gaston sigur)의 진술을 믿었다. 그는 노태우가 “한국을 민주주의의 개화기로 이끌었”으며 “경찰의 힘을 억제하고” 그의 정책은 “노동조합의 자유를 포함했다.” 는 것을 확신했다.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적이었던 노태우를 민주주의 운동의 참여자로서 묘사함에 있어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LA 타임즈 기자인 프랭크 기버니(Frank Gibeney) 역시 노태우에 관하여 “상당히 진실한 민주투사이며, 그는 ‘한국에는 민심은 천심이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당시 노태우의 정보 요원이 “민심은 천심이다.”고 적힌 민중 신학 전단지를 노태우에게 보여주었다)고 기술했다. 전남대학교 조정관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엘리트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기가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퍼졌고, 이는 전두환의 독재를 중국의 공산주의 독재보다 훨씬 더 유순한 독재인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영어를 통해 기술된 잘못된 한국역사인식은 군사독재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김대중에게 그 책임을 돌려 비난하고 결국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반영된다.

김대중은 봉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서울의 KCIA건물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있었고, 심지어 사태 후 몇 주가 지나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위인”, 조직과 운동

“위인들”의 결정이 세계 사건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수단이 되는 반면, 보통사람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능력은 집단적인 지적능력이 개인의 지적능력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아시아 항쟁에 관한 나의 연구에서, 대중 반란이 얼마나 비전이 있

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비전은 왕, 대통령 및 독재자와 같은 민중의 “대표자”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열정적이다. 역사의 “위인”인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천재들이 가장 쫓았던 꿈조차도 세계사적인 운동이 되었을 때 신좌파의 상상력에 훨씬 못 미친다. 마틴 루터 킹의 개인적인 꿈은 기존 체계를 인종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시민권을 향한 투쟁과 베트남 전쟁 간의 연관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흑인 권력 주창자들이 이미 반전운동으로 박해받은 지 오랜 뒤였다. 수백만의 사람들처럼 마틴 루터 킹도 1960년대 지구적 추진력으로 전환되었고, 그는 저격당하기 몇 달 전 미국사회 전체를 질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생각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20세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은 블랙팬더당으로 당이 이끈 대중 운동의 지적 능력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최소한 1966년 활동과 1970년 혁명인민입헌회의에서 있었던 집단적 열망을 비교해보면 그렇다. 이 입헌회의는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이 모인 다문화 대중 집회로 블랙팬더당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1970년 9월 5일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졌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어느 조직보다도 블랙팬더당은 혁명적 진보에 앞장섰으며, 대중 운동과 혁명적 정당의 변증법적인 동시성, 둘 간의 상호 작용, 상호 의존성, 상호 반항 등은 혁명인민입헌회의에서 가속화되어 절정에 이르렀다. 혁명인민입헌회의의 문건에 반대할 것을 표명하면서 1966년 활동은 위축되고, 그 비전은 한계가 있었다. 활동과 플랫폼에 국제연대는 없었다. 동성연애자들의 권리, 여성해방, 소수자와 여성 대표 할당 등은 1966년 관련 문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흑인 남성들의 군대 면제와 비교할 때, 입헌회의는 대기 군인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흑인 수형자들이 재판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모든 수형자들은 분권화된 공동체 중심의 재판에 의해 새로 판결 받아야 했다. 아프리카 미국인들에 대한 40 에이커 정도의 국가 보상은 원래 링컨이 약속한 것으로 1966년 활동의 일부로 다시 제기되었는데, 입헌회의의 문건에서 국제적 배상 및 지구적 부의 재분배로 대체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역사의 본질적인 운동은 갑자기 투쟁이 일반화되는 것이다. 14개월 동안 아랍의 봄은 수십 년 동안 침묵해왔던 14개 국가에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다원적 규율에 대한 열망의 시초가 드러나게 했다. 1986년부터 1992년이라는 6년 동안 아시아에서 일어난 물결은 전제적 통치자로 만족한다고 여겨졌던 8개 국가에서 9개 독재정권의 종식을 가져왔다. 위대한 인간과 조직 중심의 관점은 그러한 도약을 지적으로 개념화하지 못하면서 그 취약성이 분명해졌다. 투쟁이 일반화된 기간이 “세계사적인 개인”이나 정당으로 조직된 소수 공모집단에 의해 그다지 영리하게 퍼져나가지 않았지만, 그 기간엔 수백만 명의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 담겨있다. 이러한 순간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공동의 장이 된 것들과 대조적으로 정치의 에로스화가 된 것들이다. 바로 에로스 효과이다. 인간의 현실에서 이러한 도약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변화는 예전에는 수동적인 구경꾼이었던 사람들이 전체 스트라타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한 자발적인 도약은 부분적으로는 장기적인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조직된 집단과 의식화된 개인들이 현장 활동을 준비하지만, 정치투쟁이 수백만을 동원하게 될 때 보기 드문 역사적 광경을 스쳐볼 수 있다. 에로스 효과가 일어나고 본능적으로 자각하는 무수한 인간들이 정의와 자유를 요구한다.

물론 역사의 운동은 조직에 의해 임무가 수행되지도 않고 공모에 의해 조직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역사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이 드러내는 것처럼, 에로스 효과가 일어나는 순간에 실제화되는 수백만의 행동이 자유의 실현에 이르는 새로운 단계를 확정한다. 사회의 방향을 결정

하는 것은 수백만의 행동이라는 통찰은 오늘날 명백해 보이지만, 그 기원이 프랑스와 미국 혁명이라는 것은 최근의 통찰이며 20세기말 운동에서 강화된다.

아시아의 봉기에 관한 내 저서는 활동가 수십 명의 이야기에 의존했다. 1999년 나는 처음 한국에 왔는데 1968년에 관한 내 책의 한국어판이 출간된 이후였다. 그 때가 유일한 한국방문이 될 거라는 생각에 광주를 방문하기로 했고, 그 방문으로 광주와 광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6개월 뒤 방문연구자로 초빙되어 2001년 광주에 왔다. 광주에 대한 첫인상은 나일성과 나간채교수가 도와주어 이루어진 시민군 인터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람들에게 나는 내 책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거의 대부분이 나와 같은 외국인을 만나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50명이 넘는 투사들을 인터뷰했고, 거의 150명에 가까운 시민 활동가들을 인터뷰했다. 5.18 연구소가 이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고인이 된 신은정은 누구보다도 나에게 한국 운동의 내부를 가르쳐준 사람이다.

수년 동안 나는 광주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즐거움과 혜택을 받았고, 5.18 기념재단은 수천 명의 아시아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광주의 투쟁을 배우게 하고 묘역을 방문하여, 활동가들이 자유를 향한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얻어가게 해주었다.

나는 재단과 함께 일했고 많은 아시아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 초대되어 강연을 했다. 그 활동가들의 나라에 초대되어 방문도 하였다. 광주에서처럼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도 2008년과 2009년 사이 50여 명의 시민활동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운동에 대해 배웠다. 상원의원이나 장관이 된 사람도 있고 네팔처럼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현장 활동가들이다.

항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위인이나 정당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는 역사의 관점을 제공한다. 오늘날 전지구적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류는 한 종으로서 빠르게 자기 의식적이 되어간다. 곳곳에서 자유 투쟁이 자발적으로 부상하면서 진정한 역사의 대중형성이 가능하게 되고 더욱 더 전망 있는 미래가 분명해진다.